

문헌 번역의 엄밀성을 위하여

신정근*

연구자가 동아시아를 자신의 연구 대상으로 삼을 때 한문(漢文)으로 쓰여진 문헌의 번역과 해석이라는 일차적인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만약 특정 문헌에 대한 전거(典據)할 만한 번역본이 있다면 연구자는 자신의 일차적인 연구 범위가 아닌 문헌조차 번역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래서 일본, 구미 등의 경우 동아시아 문헌을 연구하려고 할 때 개별 연구자들은 문헌의 번역본, 예컨대 《서경》, 《시경》, 《좌전》, 《논어》, 《맹자》 등을 참조하여 그것의 번역을 인용한다. 한국의 경우도 물론 《서경》, 《시경》, 《좌전》, 《논어》, 《맹자》 등에 대한 번역본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필자는 한국의 경우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이지만-- 엄밀한 번역본이 과연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논어》를 예를 들어 살펴보자. 《논어》는 근대적 학문의 분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종합적인 성격으로 되어 있는 문헌이다. 그렇다면 《논어》의 ‘완전한’ 번역본이 있으려면 단순히 한문의 능통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제이다. 즉 역사학, 문학, 철학, 음악, 사회학 등의 연구 성과가 집대성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예컨대 《논어》의 “詩, 可以興, 可以觀, 可以羣, 可以怨”(〈양화〉9)에서 ‘可以興’은 단순히 ‘일으킬 수 있다’라고 번역될 수 없고, 중국 고대 문학의 ‘비’(比), ‘부’(賦), ‘흥’(興) 용어의 기원과 관련해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可以怨’도 ‘원망할 수 있다’라고 번역할 수 없고, 당대 사회의 계층의 대립과 그 해소의 기법이라는 역사학과 문학의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현대의 연구자는 고대 시기의 문헌의 용어를

* 서울대 철학과 박사과정

번역할 때 단순히 그 용어의 일차적인 의미 하나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서 번역할 수 없고 여러 분야의 연구 성과를 참조해야 한다는 임무를 떠안게 된다.

필자는 위의 문제 제기를 통해 《논어》에서 심각하게 오독(誤讀)되고 있는 두 가지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보다 엄밀한 문헌 번역과 해석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는 《논어》에 3차례 쓰이는 ‘도’(盜)라는 용어이다. 종래 번역본에서는 이 ‘도’를 ‘도둑’, ‘절도 사범’ 등의 의미로 풀이하고 있다. 물론 현대에서 ‘도’(盜)의 일차적인 의미가 ‘도둑’이라고 할지라도 《논어》나 《좌전》 등의 ‘도’(盜)를 단순히 도둑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선진시대 문헌에서 ‘도’는 오늘날의 ‘도둑’의 “타인 소유물의 훔치기”라는 의미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좌전》에서는 일부 지역의 지배권을 타국에 양도하는 행위도 ‘도’이고 정치적 입지를 달리할 때 한쪽이 ‘도’를 시켜 다른 쪽을 살해하기도 하고, 《목자》와 《장자》에서는 국가의 지배권을 탈취하는 행위를 ‘도’라고 한다. 그렇다면 단순히 “타인 소유의 물건을 훔친다”를 기준으로 선진시대 문헌의 ‘도’를 도둑으로 번역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선진시대 문헌을 보면 자신들의 주장을 논증할 때 상투적으로 ‘도 비유’를 빈번하게 사용한다. 그래서 필자는 ‘도’에 대한 새로운 의미 규정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학과 사회학에서는 선진시대의 ‘도’에 대해 공동체를 이탈해 신취락을 형성한 집단으로 규정한다. 필자는 이 규명에 덧붙여서 ‘도’는 질서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선진시대에 ‘사람’은 ‘출생’과 ‘성취’라는 계기에 의해 사회적 역할을 취득할 수 있다. ‘도’는 대부분 사회적 역할 취득의 안정된 방식을 위반하는 측면과 결부되어 있다. 그래서 “季康子患盜”(《안연》18)에서 계강자가 너무도 세심해서 사인간의 ‘절도’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인다고 보기보다는 ‘도’로 상징되는 질서 위반의 현상에 깊은 우려를 표시해야 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두 번째 사례는 《논어》의 전체 철학과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되는 “克

己復禮爲仁”(〈안연〉1) 구절이다. 종래 이 구절은 “자기의 사욕을 극복해서 예로 돌아감이 인이다”로 해석됐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선진시대 문헌으로서 《논어》의 문제 의식과 연결되려면 적어도 다음의 두 가지 의미의 계기를 함축하고 있어야 한다. 먼저 ‘기’가 선진시대의 문헌에서 ‘사욕’을 의미하는 용례로 쓰여야 한다. 그러나 ‘기’는 《시경》과 《서경》에 아주 적게 쓰일 뿐이고, 《좌전》과 《논어》에서도 ‘기’는 ‘사욕’이 아니라 ‘영향력의 소유자’, ‘학습을 통해 익힌 능력이 누적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 물론 ‘夫己氏’, ‘彼己之子’, ‘彼哉彼哉’ 등의 경우 ‘기’는 경멸, 비칭으로 사용되지만 그것은 경멸할 만한 행위를 하게 만드는 원인으로서 인간 내면의 사욕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냥 그러한 예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경멸하는 의미 이상을 가지지 않는다. 또 ‘극기를 자기의 사욕을 극복하다’로 해석하려면 사람은 극복하는 자아와 극복되는 자아라는 두 가지 자아를 설정해야 한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행위에 앞서 내면에서 두 가지 상충되는 마음이 치열하게 각축되고 대립해서 결과적으로 어느 것이 이기게 된다는 각복을 연출해야 한다. 그렇지만 적어도 《논어》 등의 춘추시대 문헌에서는 인간을 마음을 두 가지 양태로 구분하여 대립한다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한국에서 《논어》를 읽을 때 대부분 주희의 《논어집주》를 접하기 때문에 위의 해석이 지명하고 최선의 해석으로 무반성적으로 수용되고 있을 뿐 춘추시대의 철학적 물음과 관련해서 조망하면 위 구절은 다른 방식으로 독해돼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잠정적으로 “자기 스스로 숙련/반성해서 예로 돌아간다면 ‘인’이 된다”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서 필자는 {논어}라는 특정 문헌을 번역, 해석할 때 다양한 분야 즉 역사학, 문학, 사회학, 철학 등의 연구 성과를 종합할 때 ‘오독’(誤讀)과 ‘오해’(誤解)를 피하고 ‘정독’(精讀)과 ‘정해’(正解)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